운문사 출가학교 회향…4명 '출가 발원'

7월 5일, 제1기 회향식 봉행돼
6박 7일 교육, 13명 전원 이수해
수료생 4명 "출가·은퇴출가 발원"

박지운 기자


운문사 제1기 바라밀출가학교 수료생 13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중 4명은 출가 및 은퇴출가를 발원했다.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는 7월 5일 '바라밀 출가학교 제1기 회향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운문사가 주관한 이번 출가학교에는 13명이 참가해 6월 29일부터 6박 7일간의 교육과정을 전원 수료했다. 수료생 13명 가운데 3명이 출가를, 1명이 은퇴출가를 발원하는 성과도 거뒀다.

운문사가 처음 개최한 바라밀 출가학교는 출가에 관심 있는 이들이 수행자의 일상과 수행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출가의 참뜻을 이해하고 수행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회향식에서 주지 은광 스님은 "'함께 시작해서 함께 끝을 맺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작과 끝 사이에는 수많은 마음이 오르내리지만, 그 마음을 잘 다독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깊이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건강하고 밝은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우듯, 이번 6박 7일의 출가수행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진 수행의 씨앗이 돼 삶 속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초발심자경문〉의 '삼일수심(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탐물(百年貪物)은 일조진(一朝塵)'을 인용하며 "짧은 수행이라도 바른 마음을 닦는 공덕은 천년의 보배와 같다. 이번 수행이 참가자 모두의 삶을 비추는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한다"고 기원했다.

한 참가자는 "출가자의 삶이 막연하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6박 7일 동안 수행공동체에서 생활하며 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며 "수행자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가자들은 교육 기간 동안 새벽예불과 발우공양, 좌선, 기도, 운력, 강의, 스님과의 차담 등을 경험하며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했다. 예불에서는 부처님께 예경하는 의미를 배우고 발우공양에서는 공동수행의 정신과 감사의 마음을 익혔다. 좌선과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으며, 스님들과의 차담에서는 출가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고 수행자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평가에서 참가자들은 "출가를 단순히 생활환경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전환하는 수행의 길로 이해하게 됐다"며 "특히 운문사의 수행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며 출가 수행의 의미를 직접 경험하며, 수행과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운문사는 "이번 제1기 운영을 통해 출가 수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넓히고 미래 출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바라밀 출가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수행문화 체험과 출가 정신을 널리 알리는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생 펼친 공덕, '명예박사'로 회향

중앙승가대, 오정미 수석부회장 학위 수여



깊은 불심(佛心)과 원력으로 포교 신행 문화 진흥에 앞장서 온 오정미 조계사 신도회 수석부회장(법명 원법행)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승가대(총장 월우 스님)는 7월 8일 문수원에서 '오정미 수석부회장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오 수석부회장은 신도회를 이끌고 선종 사찰을 순례하며 안거 중인 스님들에게 지심으로 대중공양을 올렸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이사로서 대승보살행도 실천해왔다. 이 같은 공덕을 높이 평가한 중앙승가대는 교내 회의를 통해 오 수석부회장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의했다.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량없는 복덕으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며 조계종 신도로서 최고의 지위를 얻은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학위 수여식에서 월우 스님은 학위기와 기념패, 꽃다발을 오 수석부회장에게 전달하고 축하했다.

학위 수여 직후 오 수석부회장은 불연(佛緣)을 맺게 해준 어머니와 지금의 자리를 있게 해준 중앙승가대, 조계사 사부대중 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 수석부회장은 "오늘의 영광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조계사 도반 여러분과 함께 정진하며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오늘 학위 수여를 계기로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사와 중앙승가대가 맺은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김포=신중일 기자

광주 광덕사 '누리하제 인문학당' 첫발

7월 3일, 시민인문강좌 개강
하성용 신부, 첫 강사로 참여
개신교, 원불교 강의도 예정


누리하제 인문학당이 7월 3일 광주 광덕사에서 하성용 신부의 강의로 첫발을 내디뎠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함께 모색하는 시민인문학당이 광주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성직자들이 릴레이 강연에 나서는 '누리하제 인문학당'은 7월 3일 광주 광덕사(주지 동진 스님)에서 첫 시민인문강좌를 개최했다. '평화와 공존, 우리의 시대를 묻다'를 주제로 마련된 인문학당은 종교 간 경계를 넘어 시민들과 정의와 평화, 공존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개강식에는 광덕사 주지 동진 스님을 비롯해 민판기 누리하제 인문학당 준비위원장, 하성용 가톨릭 서울대교구 신부,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 덕림사 주지 지선 스님, 정진욱 국회의원, 광주시·남구의회 의원, 고윤근 광주전남장학재단 이사장, 김영집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박인수 광덕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누리하제 인문학당은 종교와 세대, 계층의 차이를 인정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자본과 경쟁 중심 사회에서 심화되는 갈등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찾자는 취지다. 준비위원회는 콩나물과 김치, 참기름, 고추장이 어우러져 비빔밥을 이루듯 각자의 고유한 색깔을 인정하며 문화와 예술, 인문학으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해방의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첫 강연은 하성용 신부가 '절에서 듣는 신부님 이야기-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화'를 주제로 진행했다. 하 신부는 "정의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획일적인 공정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라며 "약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차별이자 폭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와 평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고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설명했다.

동진 스님은 환영사에서 "누리하제는 단순히 세상과 미래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반목과 갈등을 멈추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화합과 평화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문학당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희망을 살려내는 공간으로 오래도록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민 준비위원장은 "누리하제 인문학당은 다툼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작은 해방구이자 쉼터"라며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차를 마시고 공부하며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공간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시민 인문학당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누리하제 인문학당은 8월 7일 임의진 목사의 '세상은 넓고 인생은 짧다', 9월 11일 강해윤 교무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사명과 원불교의 역할' 강연을 이어간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원사 산신대재 보존회, 법인화 박차

7월 5일, 신원사서 임원회의



사단법인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 산신대재 보존회(이사장 성관 스님·신원사 주지, 이하 보존회)는 7월 5일 공주 신원사 세심당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법인 설립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사장 성관 스님은 "보존회의 법인화는 산신대재의 역사적 원형을 연구하고 전통 제례를 계승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중악단과 산신대재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법인 설립 추진 경과보고에서는 보존회가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공주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신원사가 기본재산을 출연해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의 법인 설립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충청남도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해 현지 실사를 마쳤으며, 허가가 완료되는 대로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해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대원청년회, 경주서 워크숍 성료

진흥원, 7월 6~8일 황룡원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 이하 진흥원)은 7월 6일부터 8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전국 대학생 불자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6년 제4회 대원청년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나를 찾아가는 명상여행Ⅳ'를 주제로 열렸다.

첫째 날에는 구상진 이사장의 특강 '대학생 불교 수련의 의의'가 진행됐으며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석굴암과 불국사를 순례하며 천년고찰의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바디 명상과 내면 탐색 프로그램을 이어갔다. 마지막 날에는 마음챙김 명상과 모둠별 소감 발표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구상진 이사장은 "대학생활 속에서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찾는 소중한 과정"이라며 "청년들이 불교를 통해 인생의 가치와 지혜를 익히는 일은 개인은 물론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세종 선명상축제 개막…"마음 치유의 장"

7월 5일, 광제사 · 전통체험관서
26일까지 매주 일요일 프로그램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 속 마음의 평안을 전하는 '2026 세종 선명상축제'가 막을 올렸다.

세종 광제사(주지 탄대 스님)는 7월 5일 대웅보전과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광제사 마당에 핀 연꽃, 마음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2026 선명상축제' 개막식을 봉행했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조계종 미래본부와 광제사,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7월 한 달간 매주 일요일 총 8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불교 수행과 현대 치유 콘텐츠를 접목한 생활 속 선명상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개막식에서 주지 탄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진정한 평화는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선명상이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행문화로 자리 잡아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에 평화와 행복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진 개막 강연에서는 선명상 앰배서더 선중 스님(세종 보현정사 주지)이 '내 몸의 숨결, 내 마음의 친절'을 주제로 시민들과 만났다.

12일에는 이지은 강사의 '선명상 핸드팬 음악치유'와 김하나 강사의 '사람 통역기,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진행됐다. 19일에는 담소 스님의 '미술 심리 치유'와 양두섭 강사의 '참선과 무예, 움직임 선명상', 26일에는 박상근 강사의 '기억의 숲에서 나를 만나다'와 선정 스님의 '소리 선명상'이 진행된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한국불교대학, 권오덕 동문신도회장 취임

7월 4일 경내 옥불보전서 취임
"소통 · 화합해 수행 봉사 실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제28대 총동문신도회장에 권오덕 회장이 취임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주지 대륜 스님)는 7월 4일 옥불보전 4층 대법당에서 총동문신도회 제27·28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관음사 주지 대륜 스님을 비롯해 총동문신도회 임원과 동문 불자들이 참석해 제27대 총동문신도회장인 여실화 이영애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제28대 총동문신도회장으로 취임한 법경 권오덕 회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주지 대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삶의 지혜가 살아 움직이는 수행도량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화합과 원력으로 신도회를 이끌어 한국불교대학이 더욱 성장하는 수행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8대 총동문신도회장에 취임한 법경 권오덕 회장은 "소통하는 회장이 되어 수행과 봉사가 조화를 이루는 도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국불교대학은 수행 정진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도량인 만큼 신도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큰절 222기로 입학해 기수기장을 맡았으며, 4년간 지도법사로 활동했다. 이후 포교사 부루나회 총무국장과 부회장을 역임했고, 저녁반 지도법사 총괄팀장을 맡아 후학 양성과 포교에 힘써왔다. 또한 총동문신도회 봉사국장을 7년간, 부회장을 2년간 맡으며 신도 조직 운영과 봉사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붓다봉사단, 세계댄스페스티벌 후원 행사

7월 7일 콜롬비아팀 지원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과 김판쇠전주우족탕(대표 김동우·사단법인 붓다 복지관 운영단장)은 7월 7일 전주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콜롬비아 청소년 댄스팀을 후원했다.

이날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 회원들은 콜롬비아 댄스팀을 위해 정성스러운 식사 봉사를 진행했으며 천지사 주지 현진 스님을 비롯해 이재현 붓다봉사단장, 허남근 월간 붓다 편집장 등 봉사자 10여 명이 동참했다.

마이산 탑사 회주이자 사단법인 붓다 이사장인 진성 스님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세계 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존중하며 교류와 소통의 장을 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